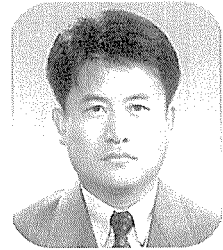


아시아 전자전 협력회의를 마치고



최영훈 부장 (본회 국제부)

제4차 아시아전자전 협력회의(AEECC : Asia Electronics Exhibition Cooperation Conference)가 지난 5월 2일과 3일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97년 일본의 제안에 따라 연례적으로 열려온 AEECC는 '97, '98은 일본에서, 작년에는 대만에서 개최되었고 올해 우리 나라에서 열리게 되었다.

AEECC 는 매년 일본, 대만, 홍콩의 대표적 전자정보산업 전문전시회 주최기관을 주축으로 개

서는 이미 현실화되어 그 동안 일본전자전(JES), 통신관련전시회(Com.-Japan), 소프트웨어 전시회 등 분야별로 각각 개최되던 전시회들이 금년부터는 CEATEC 이라는 이름으로 일원화되어 금년 10월에 열릴 예정이다.

새로운 이름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서인지 이번 회의에도 EIAJ 뿐 아니라 통신협회(CIAJ), JEIDA, 소프트산업 협회(JPSA), 일본전시협회(JESA)대표들도 함께 참석하여 CEATEC 홍보에 열의를 보였다.

· 아시아 전자전 협력회의를 마치고 · 아시아 전자전 협력회의를 마치고 · 아시아 전자전 협력회의를 마치고 ·

최되어 오고 있는데 올해 특기할 사항은 중국대표가 처음으로 참가하여 AEECC 회원국 확대의 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매년 가장 많은 대표가 참석 해오고 있으며 그 구성도 전자,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관련 단체 대표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열릴 경우에는 민간기업 대표들도 대거 참석한다.

특히 일본은 올해 들어 정보화와 통합화로 특징지워지는 새로운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키 위하여 변화와 변신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이 업종별 단체간의 통합과 전자관련 전문전시회의 통합이다.

가까운 장래에 가전 분야를 총괄하는 대표단체인 EIAJ와 컴퓨터와 정보산업을 대표하는 JEIDA가 합쳐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으며 전시분야에

대만은 올해도 본회와 같은 대표적인 전자관련 단체인 TEEMA와 우리나라의 KOTRA 성격인 CETRA 대표가 참석하였다.

TEEMA는 CETRA와 함께 대만 최대전시회인 TAITRONICS를 매년 주최해오고 있다

홍콩은 한국전자전과 경쟁적 협력 관계에 있는 홍콩전자전의 주최기관인 홍콩무역발전국(HKTDC) 대표가 참석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참가한 중국은 전자관련 유력전시회인 NEF(National Electronics Fair)의 주최기관인 CEAC(China Electronic Appliance Corporation) 대표가 참석하였다.

AEECC가 매년 논의하는 의제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일정과 홍보분야에서의 협력이다.

특히 전시일정의 연계는 각국의 최대의 관심사

로써 많은 해외바이어의 유치를 위한 핵심적 사항이라 하겠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주요 전자전들은 10월에 열리고 있다.

같은 기간대에 열리기 때문에 미주와 구주의 바이어들은 한번의 출장으로 아시아 지역 주요 전시회를 둘러보며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각국의 전시 일정이 연계되지 않으면 시간이 돈인 바이어들은 중간에 본국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본회도 전시일정에 특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몇 년 전에 한국전자전의 일정이 동남아 전자전과 연계되지 못하여 참가업체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다.

구하고자 한다.

이번 AEECC에서 2001년도 일정은 일본, 중국과는 전시장 사정상 이들의 겹이 있지만 한국, 홍콩, 대만의 전시 일정이 완전 연계가 되도록 하였고



· 아시아 전자전 협력회의를 마치고 · 아시아 전자전 협력회의를 마치고 · 아시아 전자전 협력회의를 마치고 ·

당시 본회는 일정 연계를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ASEM 신축으로 과거 구관에서 열리던 전시회를 신관에서 소화하다 보니 전시장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연계가 되지 못하였다.

아직도 일부 업체들은 전시일정을 주최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

본회는 전시회 주최를 통하여 수출증대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생각에 전시일정 연계, 해외 유력매체를 통한 바이어 유치 광고, 전시장내 상담장 설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전시일정에 관한 한 코엑스의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 한 것이다.

올해도 국가적 대행사인 ASEM 개최로 한국전자전 일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대한 노력하여 가까스로 10월 개최가 가능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히며 참가업체 여러분들의 양해를

2002년부터는 10월 17일을 전후로 모든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합의하였다.

전시일정이 전체 아시아 전자전 주최기관에게 공통적 관심사라면 홍보, 광고 분야는 주최자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이 가능한 부문이라 하겠다.

현재 한국, 일본, 대만간에만 무료 홍보부스의 상호 교환을 하고 있는데 내년 부터는 5개국 모두가 홍보 부스를 상호 바터 형식으로 교환 운영키로 하였다. 아울러 홍보부스 설치시 기본적으로 제공 되어야할 품목에 대하여도 의견일치를 보고 품목 리스트도 정하였다.

광고 분야에서는 각 기관의 정기 간행물에 회원국의 전시 안내광고를 게재키로 하였으며 간행물 및 광고의 종류와 형식에 대하여도 기준을 정하였다.

광고 분야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홍콩 대표의



호에 대한 주최기관의 관심과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일본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홍콩 대표는 홍콩전자전의 예를 들어 그 시행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 문제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전시주최자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으로 관련규정의 도입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앞으로

발의로 금년부터 텍스트 형식의 AEECC 공동 광고를 시행키로 한 것인데 아시아 주요전자전의 개최기간, 장소, 주관기관 연락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회원국의 정기, 비정기 발간물에

우리나라 전시회들이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과제가 될 것 같다.

회의는 끝으로 다음 회의를 내년 2월 홍콩에서, 2002년 회의는 중국에서 열기로 하고 막을 내렸다.

· 아시아 전자전 협력회의를 마치고 · 아시아 전자전 협력회의를 마치고 · 아시아 전자전 협력회의를 마치고 ·

연 2회 이상 게재키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각 전시회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시행키로 하였고, 또한 보도자료를 교환하고 이를 자국어로 번역하여 해당국 언론기관에 배포키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회원국 확대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회원국 확대를 위하여 공동노력키로 하였고 그 대상은 전시장 관리회사가 아닌 전시주최기관에 한하기로 하고 일본을 통하여 가입의사를 표시해온 싱가포르에 대하여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후 회원국의 의견에 따라 결정키로 하였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전시품의 지적재산권 보

각국 대표들은 마지막날 수원성과 민속촌 관광을 함으로써 모처럼 한가한 시간을 가졌다.
 각국 대표들은 이를 통하여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는데 동양 3국 문화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서울 AEECC는 전시일정 연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향후 정례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홍보, P.R. 분야에서도 내용과 방법면에서 충실한 토의의 장이었다고 생각되며, 아시아 다른 나라에서도 AEECC에 대하여 이해가 높아짐에 따라 회원국의 증가와 아울러 AEECC가 아시아지역 전시분야 협의체로서 그 역할이 높아 질 수 있음을 확인한 뜻 깊은 행사였다.